"앙콜곡 끝낸후의 감동…눈물 참느라 혼났습니다"

5·18음악회 이끈 KBS교향악단 함신익 지휘자

18일 국립 5·18묘역에서 공연을 마친 KBS교향악단 함신익 지휘자가 5월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고 있다. /KBS제공

올 5·18 행사 가운데 눈에 띈 건 18일 국립 5·18묘역에서 열린 KBS 교향악단의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 특별 연주회였다. 특히 이날 연주회는 KBS 1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돼 전국민들에게 '5·18'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KBS교향악단 함신익(53) 상임 지휘자를 19일 전화인터뷰했다. 함 지휘자는 "지휘를 하는 입장이라 목을 하나도 쓰지 않았지만 가슴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무언가를 참느라 지금 목이 쉬어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며 "보통 연주회보다 100배는 더 힘이 들었고 혼신의 힘을 다한 공연이었다"고 밝혔다.

함 지휘자는 KBS교향악단이 5·18 묘역에서 연주하는 건 일반적인 흑백논리로 볼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만큼 '의미있는 행보'였다고 말했다. 음악이야말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최상의 방법이고, 연주 모습이 생중계되고 5·18 묘역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면서 '5월 광주'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함 지휘자가 직접 선곡한 이날의 연주 레퍼토리에는 '스토리'가 있다.

"위로, 공유, 치유, 미래의 비전, 승리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생각하며 곡을 선정했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한 첫곡은 '그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곡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불러내는 의미죠.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어요. '목련화' 등 성악가들이 불렀던 가곡들은 떠난 이들의 깨끗함을 상징하고 그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피날레곡이었던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은 더 이상 죽음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향해 가자는 의지와 승리를 나타내구요."

이날 관객들의 요청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과 '아침이슬'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앙코르 곡으로 연주하고 내려온 함지휘자의 손을 꼭 쥐며 고마움을 표시한 이들은 오월 어머니들이었다.

"어머니들이 죽은 우리 아들이고 3이었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오늘 공연해 줘서 참 고맙다고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제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나쁘게 보지 말아 말아주세요' 하시는데 꼭 껴안고 함께 울고 싶었죠. 참느라 참 애썼네요."

함 지휘자는 5·18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터라 당시에는 '광주'에 대한 오해도 많았다고 했다. 198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그곳에서 독일인이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서서히 무지의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5월 당시를 생각하면 KBS에 대한 입장이 좋을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음악회는 이념, 정치 등 각종 이해관계를 넘어서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오직 '음악'으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음악의 힘이죠."

함 지휘자는 "이번 음악회가 광주가 슬픔을 넘어 미래를 향해 비전을 갖고 도약하는 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방소비세 전남엔 毒

세입 순증가액 445억…15개 시·도중 꼴찌

지방재정의 확충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된 지방소비세가 전남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박병희 순천대 교수와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내놓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전남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과 지방재정 변화'라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의 지난해 지방세 수입 중 지방소비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였다.

이같은 수치는 대구(11.8%), 충남(10.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지만, 시·도별 세입 순증가액 규모는 전남이 445억원에 불과, 제주도(281억)를 제외하면 15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서울은 세입 순증가액이 34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32억, 부산은 1916억원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를 우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19.24%)을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남은 지방소비세 비중은 가장 높지만 실제 수입은 가장 적어 지방소비세 도입의 혜택을 가장 적게 보는 셈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자체 재원은 늘었지만 부가가치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는 감소,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은 전남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박사 등은 이에 따라 ▲교부세 인센티브제도의 강화에 대응한 인센티브 항목별 대응 ▲지방재정 수입구조의 개선 ▲지방채 발행의 엄격한 관리 ▲투융자심사제의 합리적 운영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신안 섬 관광, 기업 투자유치 탄력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고 있는 신안지역 섬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과 기업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19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신안군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체제를 구축, 차별화된 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의 기획·개발·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신안 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방안과 다양한 개발 아이템을 기획·발굴하는 역할을 맡고, 신안군은 차별화 전략과 홍보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섬 개발사업과 관광상품화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 유치 및 투자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역할도 병행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빛고을노인타운 개원 2주년 행사 다채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개원 2주년을 맞아 백일장과 도전 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은 19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19일 '빛고을 어르신 백일장', 오는 6월8일 '빛고을 어르신 골든벨', 30일 '상반기 프로그램 작품 발표회' 등을 잇따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6월8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리는 '도전! 어르신 골든벨'에는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예선을 거쳐 시사상식과 0X 퀴즈 등을 풀게 된다. 밝은안과 21병원과 아이안과, (사)희망나무 등에서 건강용품을 제공하고 코레일 광주본부와 조선대병원이 선물을 증정한다. /윤현석기자 chadol@

무등산 수박 등 특산물 지식재산 등록 추진

무등산 수박이나 경주 법주, 보령 머드와 같이 지역 이름과 함께 잘 알려진 특산물이나 공예품을 지식재산으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특허청과 함께 특산물과 공예품 등 지역 핵심자원을 지식재산으로 등록하고 관련 분쟁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특허청은 앞으로 3년간 유망한 핵심자원 100여건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할 방침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현재 순창 고추장과 이천 도자기, 전주 한지 등이 등록돼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전남개발공사 추궁해보니…

장흥산단 타당성 분석 소홀 58억 손실

전남개발공사가 부실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1400억원이 넘는 장흥 해당산단 개발을 추진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장흥해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소홀히 해 지난해 말 현재 5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신규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고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사전 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해당산단의 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 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개발공사는 또 조성원가 산정 과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국고보조금 165억원을 포함, 조성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는가 하면, 현실성이 없는 '연차별 투자 및 회수계획'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산업시설 용지의 경우 착공연도인 2010년에 1단계 분양대금(964억원)의 33.3%(321억원), 2011년에 나머지(643억원)을 회수한다는 게 개발공사 계획이지만 이대로라면 분양대금 중 계약금 비율(20%)을 고려할 경우 착공연도에 100% 분양이 되고 중도금과 잔금이 지체 없이 회수돼야만 가능하다.

또 실제 계약상으로만 분양대금을 모두 거둬들이는데 3년이 걸리는데다, 지난해 말 용지 분양대금 회수계획(24%)에 비해 실제 회수 실적(4%)도 턱업이 모자라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도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를 재검토하기 위한 내부 타당성 심의를 거치는게 바람직한데도, 이같은 규정 없이 '평동 2차산단 조성사업'등 7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전남개발공사 관계자와 전남발전연구원 위원에 대해 각각 주의조치를 내리고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결선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분단의 상징' 백령도 진돗개가 지킨다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가 분단의 상징인 백령도를 지키게 됐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돗개 사육농가인 김태옥(진도개 라이프)씨가 최근 진돗개 황구 2마리를 백령도에 주둔하는 해병 제6여단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백령도에 진돗개를 기증해 진돗개의 힘차고 용맹한 기상을 널리 알려 보자는 진도군의회 장덕희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뤄졌다.

김씨는 "해병대의 마스코트가 진돗개 황구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과 최단거리에 있는 백령도를 진돗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돗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 각지 명소에도 진돗개를 기증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경매투자
• 공동투자자 및 자본주 모심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감정가 50%미만 물건만 투자
• 매수 입찰대리 일체 사절
오천경매연구소
H. 011-605-5000
광주광역시 북광주 우·사 58호
E-mail : csg5000@hanmail.net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23-284, 73-38 (계 4,787㎡)
용 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존재)
문 의 02)6908-7021, 7024 (인사총무팀)
※참 조 : 공시지가 ₩1,130,000~ ₩1,320,000/㎡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1.2%~3%
국민금융 (대부 제 642호)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α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 제 540호)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부동산 매각 공고

산은캐피탈제삼호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매도인") 소유 부동산(이하, "매각대상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매도인의 자산관리자인 산은캐피탈주식회사(이하, "자산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매각을 공고합니다.

1.매각대상부동산

소 재 지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62-17 위 지상 건물 중 공유지분
면 적	토지 : 372.14㎡ / 건물 : 1,724.26㎡
층 수	지상 6층, 7층

2. 입 찰 일 시 : 2011년 5월 27일 (금) 오후 2시
3. 입 찰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번지 산은캐피탈주식회사 8층 회의실
4.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 (단독 입찰 가능)
- 당사 공매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자에게 낙찰함.
- 당해 부동산이 유찰 될 경우 동일자에 2차 추가 실시함.
- 최고 동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 동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별도 입찰 후 최고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5. 기 타 사 항
- 입찰서류 등은 당사 홈페이지(www.kdbc.co.kr)를 참조바랍니다. (5월 20일 당사 홈페이지 게재 예정)
- 공지된 입찰유의서 등을 참조하시어 입찰보증금 및 제출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업무지원실 부동산 매각담당 (02-6330-0204)으로 문의바랍니다.

2011년 5월 20일

매도인의 자산관리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법 원 경 매
법원경매 법률상담 ☎226-2785 h.p 010-5879-8300
경매주택임대차 상담, 권리신고 배당요구, 경매고충해결 소유권이전, 명도소송, 인도명령, 건물철거, 유체동산압류 가처분,강제집행,경매신청,일반임대차
【추천경매물건】

소재지	면적	입찰시작가	입찰일
월곡동 하남금호타운9층	89㎡(27평)	7천7백	05/24
금호동 라인아파트10층	125㎡(38평)	1억2천5백	05/24
풍암동 주은모아16층	79㎡(24평)	1억1천	05/24
우산동 대광로제비앙4층	145㎡(43평)	1억6천1백	06/22
계림동 금호타운2층	161㎡(48평)	1억4천	06/09
수완지구 현진에버빌5층	143㎡(43평)	2억3백	05/20
광천동 e-편한세상4층	143㎡(43평)	2억4천5백	05/20
상무지구 금호쌍용7층	165㎡(50평)	1억8천9백	05/20
월산동 단독주택	대538㎡,건246㎡	2억3천3백	06/10
쌍촌동 단독주택	대172㎡,건198㎡	1억1천9백	06/16
사동 원룸부지	412㎡(125평)	8천	06/16
상무지구 근린상가	552㎡(167평)	6억4천	06/09
화정동 상가주택	대209㎡,건347㎡	2억2천	05/24
농성동 4층상가건물	대440㎡,건1011㎡	4억8천5백	06/22
담양군 금성면 전원주택지	임야4556㎡	1억1천5백	05/24
화순군 능주면 유리온실	대5551㎡,건3577㎡	1억7천9백	06/09
동구 지산동(조대후문) 다가구주택	대지231㎡,건물321㎡	매매가3억1천	

이외 광주,전남,북에서 진행중인 모든경매물건 의뢰 가능합니다!
명도대행·명도소송·강제집행 NO.1
변호사 김길수법률사무소
☎(062)226-2785 H.P 010-5879-8300